

▶ 가족·아동

고등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민승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석사)
김진희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조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적 행위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의 성태도, 성적 허용성, 행위통제, 성행동 의도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 변인들이 성행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부산경남 지역 12개 학교(인문계 6개, 실업계 6개) 남녀고등학생 1,127명이고, 연구도구는 황수찬(2003)의 성태도, 이태희(2000)의 성적허용성, 행위통제와 성행동 의도는 이신화(2004)의 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χ^2 검증, t-test, 일원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교제 비율은 고등학교 2, 3학년 보다 1학년,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 인문계 보다는 실업계고교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그리고 무교집단일 때 이성교제 경험 비율이 높다. 고등학생들은 학년이 높을수록,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흡연과 음주의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성행동 점수가 높고 종교는 성경험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모님과의 동거는 성경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태도는 여학생보다 남학생, 인문계 보다 실업계 고교, 음주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있다. 성적 허용성 점수는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음주와 흡연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집단이 있는 집단 보다 높다. 행위통제 점수는 여학생, 인문계 고교, 음주와 흡연, 이성교제 경험이 없고, 부모님과 동거하는 경우에서 높아 이를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고등학교 시기에 성경험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려는 의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 의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고, 음주, 흡연,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고등학교 재학중에 성행동을 하려는 의도가 높다.

셋째, 계획된 행위이론을 적용하여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성태도와 성적 허용성이 성행동 의도를 $4\% (F=27.276, p<.001)$ 설명하고 있으며, 여기에 행위통제를 함께 투입했을 때는 설명력이 $24\% (F=112.790, p<.001)$ 로 증가한다. 행위통제와 성행동의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행위통제는 성행동을 $14\% (F=196.151, p<.001)$ 설명하고 있으며 성행동 의도를 함께 투입한 결과 그 설명력은 $17\% (F=118.296, p<.001)$ 로 증가하였다.

고등학생의 성행동은 성별, 연령, 음주, 흡연, 종교, 가족형태 등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학생들의 요구수준에 알맞은 내용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성행동은 성행동 의도보다 행위통제가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성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신의 성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성에 대한 책임과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곡된 성지식과 성정보를 알려주는 매체들을 접하게 되어 성적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성범죄, 낙태, 임신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